

< 2025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

[K-POP의 새로운 물결] 빅오션(Big Ocean)을 소개합니다.

(2025.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대한민국 1교시' 출연)



혹시 '청각장애 아이돌'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로 이 특별한 도전을 현실로 만든 그룹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20일 제24회 장애인의 날에 데뷔한 3인조 보이그룹 '빅오션'은 멤버 전원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초의 K-POP 아이돌입니다.

만형이자 메인 팬을 담당하는 찬연, 메인보컬이자 분위기 메이커 현진, 막내이자 시로 활약하는 멋진 지석, 세 멤버는 각자의 사연과 열정을 안고 뭉쳐 인공와우, 진동 스마트워치, 빛 메트로놈 같은 장비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신 거울을 설치하고 연습 장면을 촬영하고 확인하면서 춤동작을 맞추는 등 피나는 연습을 거듭해 무대에 섰습니다. 데뷔곡은 H.O.T의 '빛'을 리메이크한 곡으로 수어 안무가 더해져 보는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진동 스마트워치로 박자를 느끼고, 빛 메트로놈으로 타이밍을 맞추며, 수어로 노래까지 표현하는 무대는 그 자체로 감동을 주었고, 이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라고 합니다.

"저희를 청각장애 아이돌이 아니라 그냥 K-POP 아이돌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가능성의 경계를 허물며, 진심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이들의 여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K-POP의 역사에 작지만 깊은 파동을 남긴 아이돌그룹, 세상을 향해 파도처럼 퍼질 '빅오션'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서로를 위로해
때론 어제와 다르기를 기도해
누군가 넘어짐을 실패라 기록해도
That's fine that's fine 안 미워해
우린 Ocean 눈물로 채운 바다에
이제 더 이상은 잠겨있지마
어두운 밤의 끝은 널 비추니까
다함께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
우리가 함께 만들 세상을 하늘에 그려봐요
-빅오션의 '빛' 노래가사 중-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4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 '장애인', '장애인의 날'의 정의에 대해 배우는 날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배려를 다짐하는 날도 아닙니다.

후천성 장애인의 수가 선천성 장애인의 수 보다 10배나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으로 인해 아주 많은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생겼고, UN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만들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생각해 보는 날로 기억해주세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동양초등학교에서는 이런 행사를 해요

- ♣ 기간: 4월 17일 ~ 4월 30일
- ♣ '대한민국 1교시 - 우리, 함께 꾸는 꿈' 시청 및 제27회 전국 유초중고 백일장 참가
 - 4월 18일(금) 1, 2교시 교실에서 전교생 대상 '대한민국 1교시- 우리, 함께 꾸는 꿈'을 시청하고 시, 산문, 방송 소감문을 A3 이하 용지에 자유 작성 후 4월 28일까지 통합교육지원실로 제출합니다.
 - ※ 백일장 참가는 희망자에 한합니다.
- ♣ 소식지 발행
- ♣ '빛, 우리 모두 함께' 영상 챌린지
 - 도교육청 주관 장애공감 영상 챌린지 참여
- ♣ 동양초 수어영상 챌린지
 - 학생, 학부모, 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어영상을 안내하고 수어영상 챌린지에 참여한 모든 학생 및 관계자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학부모님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 내 아이

그 친구를 우리 반 친구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려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같은 반 ○○장애를 가진 친구 때문에 짜증 나 죽겠다고 해요. 알림장 적는 것도 도와주고, 미니카도 접으면서 놀아줬는데 어느 틈에 자기 노트를 찢어 놔다는 겁니다.

통합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지요. 이럴 때 부모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면 못 써. 나쁜 사람이야. ○○이는 아픈 아이잖아. 엄마가 그런 친구는 잘해줘야 한다고 했잖아. 네가 참아야지. 그런 걸로 힘들어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본인도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하고 참고 도와주는게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도 우선 아이의 힘든 감정부터 수긍해 주셔야 해요.

“맞아. 힘들지. 이해해” 아이가 “난 그 친구가 우리 반인 것이 싫어!”라고 말해도 “넌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보다는 “그런 마음도 들지. 이해는 해”라고 말해줍니다. 그다음 아이의 눈높이와 입장을



배려하여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려주세요. 그 친구가 소리 지르고 달려들거나 꼬집거나 때린다고 하면, 그때도 “그냥 참아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해. 네가 어떻게 그걸 다 참고 버티니? 엄마는 그러라고는 말 못해. 억지로 같이 놀아주라고도 안 해. 그 친구를 위해서 어른들이 많이 애쓸 거야. 네가 무조건 참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엄마가 바라는 것은 네가 그 친구를 적어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것이야.”라고 진지하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그 친구를 조금 덜 힘들어합니다. 다 양보하고 받아주라는 것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도 좋고, 싫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줘도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그 친구를 편안하게 ‘우리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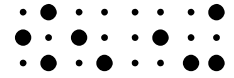
- 블로그 ‘오은영의 행복한 아이’ 글 일부 발췌 -

어떤 음료를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음료를 좋아하시나요? 속이 땡 뚫리는 사이다, 새콤한 오렌지 주스, 갈증을 해소해주는 이온 음료 등 음료수의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종류별로 진열된 음료수를 고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수에도 점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캔 음료의 윗부분을 보면 점자가 표기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료수에 표기된 이 점자는 어떻게 읽는 걸까요?

음료수에 표기된 점자의 뜻은 바로 ‘음료’입니다.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이온 음료, 아이스티 등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식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음료’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탄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탄산도 콜라, 사이다, 오렌지 맛 등의 정보가 아닌 ‘탄산’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탄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음료’로 표기한 제품도 있고, 점자 표기가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점자 표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음료를 선택할 때 난관에 부딪힙니다. 원하는 음료를 선택하려면 글자를 읽어주는 어플을 이용하거나,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원하는 음료를 직접 골라 마시는 일이 비장애인에겐 당연한 일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조금씩 점자 표기를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팔도는 비락식혜에 음료와 ‘하트’ 모양의 점자 표기를 1998년부터 함께 표기해 왔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1년 4월부터 생수와 탄산음료인 ‘칠성사이다’ 페트병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점자 표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회사도 시각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애인식 개선 도서 추천

나도 상처받지 않고 친구도 상처받지 않는 말하기 연습

강승임 글, 김규정 그림/위즈덤하우스/2023년

왜 자꾸 내 마음과 다른 말이 튀어나오는 걸까요?

표현이 서툴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어린이들의 고민을 짚어 보고, 친구와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현명한 말하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장애인식 개선 웹툰 한컷



모두가 행복한 세상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이 함께 합니다

2025. 4. 18.

동양초등학교장